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한인소망교회 비전

마태복음 11:28-30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Hope Church

주일1부예배 /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 본당 친교실	11:00 am
수요대학/기도회 / 본당	8:00 pm
새벽예배 (화-토) /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Hope
Church
Staff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유초등부	(청빙중)
영유치부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휴무장로	오귀록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이덕흥 이창진 정 민 이종학 윤순화
찬양인도	황규식
지휘자/서무	박은실
반주자	노윤실 사모 (1부, 새벽) 김은화 이화니 (2부)
통역자	김예람 이화니
방송	조준한 김예람

열방을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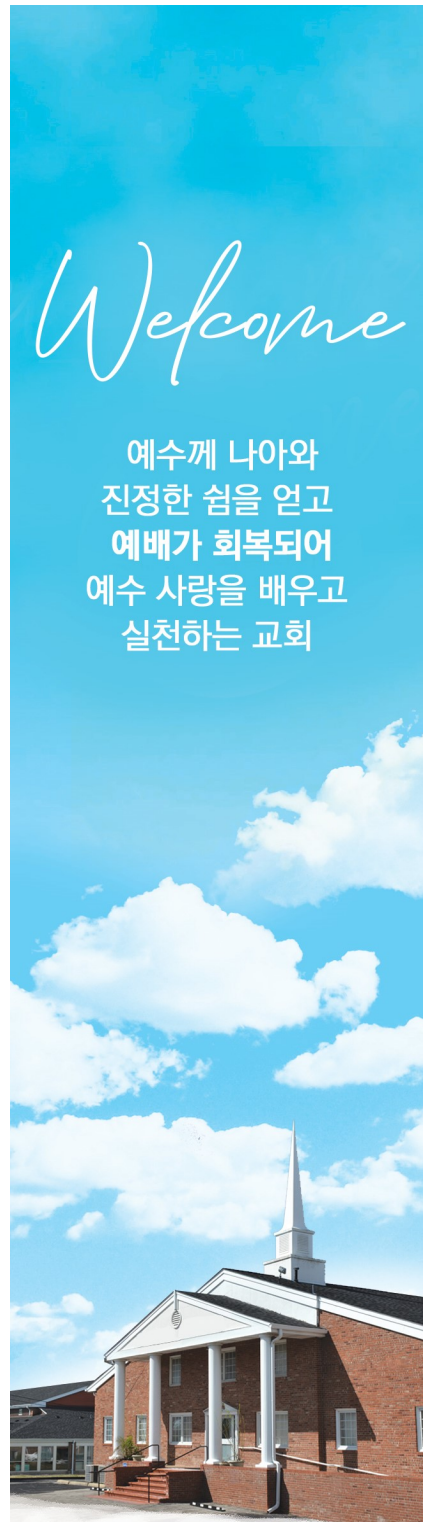
Missionaries

태국	배중원	요르단	
중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www.hopestl.org



10.23.2022

사랑의 언약

1부 9 AM 2부 11:00 AM

LIVE

주일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44번 시편 Psalm 100편
참회의 기도	사도행전 Acts 2:38
찬송	찬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같이
기도	백형수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 찬송	찬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시편 Psalm 80:1-19, OT p 862
말씀	사랑의 언약 / 김성직 목사
Sermon	The Covenant of Love
*결단의 찬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다같이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2012년 종말을 주장하던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는, 종말이 온다던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30여 개소에 건물을 매입하며 재산을 증식했고, 신천지는 14만 4천의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곳곳의 부동산 매일에 집중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는 성경은 물론이고 자신이 과거에 주장했던 교리마저도 언제든지 변개할 수 있는 교주의 존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기에 종말론이 실패하고 신도들과 그 가족들은 고통을 당해도, 이단 교주들은 부자가 되는 이율배반의 블랙코미디가 지금까지 반복된 것이다

-이단 신도들은 비성경적 종말론이 실패해도 이단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것을 걸어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종말론을 선택했던 이들에게, 불발된 시한부 종말론을 인정하는 순간은 곧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사실을 시인해야만 하는 참담한 순간이다. 결국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종말론의 실패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과정으로 쉽게 발을 내딛게 된다.

-6.25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거리에서 또 인터넷 유튜브에서 '종말을 파는 이단'의 폐해와, 다양한 이유로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종말을 잇은 교회'의 일탈을

이단이 알고 싶다 (3)

수요대학에서 나누었던 “이단이 알고 싶다 (탁지일)”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6.25 전쟁과 이단

(5) 절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 교회와 이단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노출했다.

-교회는 밖으로는 전쟁의 불안정선 가운데 무기력한 모습을, 또 안으로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장로교는 1952년 고려파(고신파)가 분리되고, 1953년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이 분리된다.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가 절박했던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분열을 거듭하는 교회에 대한 불신은 깊어갔다.

(6) 반면 이단들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지리적인 면: 강력한 교권의 그늘 아래서 숨죽이며 활동했던 서북지역(평양 대부흥운동)과는 달리, 동남단 땅끝 불교의 땅 부산에서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다. 지금도 불자

가 다수인 부산지역에서의 이단문제는 교회 안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비춰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단과 정통의 구분은 효과적인 구속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심리적인 면: 혼란과 불안의 피난지를 살고 있던 피난민들에게는, 내세의 축복을 강조하며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보다, 임박한 종말과 지상천국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감언이설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던 피난민들의 공허함과 애통함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이단들의 타이밍은 절묘했다.

-신앙적인 면: 전쟁의 상황에서 눈물로 찬송하던 피난 기독교인들에게, 기성교회의 한계와 부족함을 신랄하게 비난하며, 친밀함을 무기로 다가오던 이단들의 접근은 피하기 힘든 미혹이었다.

(7) 사회적 혼란기에 나타나는 비성경적 시한부 종말론 역시 6.25 전쟁 시기에 기승을 부렸다.

-또한 이후에도 민주화와 밀레니엄의 사회적 전환기에도 나타남. 다미선교회(1992년 휴거), 하나님의 교회(1988, 1999, 2012 반복적 시한부 종말론), 신천지(14만 4천 명 조건부 종말론)이 등장해 흑세무민했다.

-흥미로운 점은 시한부 종말론이 시기가 지나 분명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영향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

성시교독

교독문 44번 시편 Psalm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다같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의 언약 (시80편)

<본문 속으로>

1. 본문에서 예배자 아삽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이전에 무엇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나요? (3절, 7절, 19절)

2. 본문에서 인자에 대한 묘사는 무엇입니까? (17절)

[토요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쉽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주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

정 민 장로님: 요양원에서 다리 재활 중이십니다.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이십니다.

김기봉 장로님: 현재 담관암 진단을 받으시고 다른 검사들도 진행 중입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이십니다.

이경진 자매님: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제목 PRAYER REQUESTS

[월요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화요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수요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

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목요일]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금요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사랑의 언약은, “한결같이 주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는 나의 죄악됨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나를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은혜의 주만 제대로 바라보며, 이 땅을 말씀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눈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나의 죄성을 돌아보며, 말씀 따라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2. 사랑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심어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가꾸어주시는 그 힘으로, 마침내 담장 너머로 주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완전하게 이뤄주신 이 사랑의 언약인데, 나는 과연 심겨진 포도나무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선한영향력은 커녕, 도리어 세상에 동화되고 있는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예배를 섬기는 이들

Oct 23	대표기도 백형수 장로	교회청소 도미니카 구역 (10월)	애찬담당 교역자 구역	설교번역 김예람	헌화
--------	----------------	--------------------------	----------------	-------------	----

Oct 30	대표기도 오귀록 장로	교회청소 도미니카 구역 (10월)	애찬담당 키르키즈스탄 구역	설교번역 이화니	헌화
--------	----------------	--------------------------	----------------------	-------------	----

향기로운 예물 10/16/2022

주일	\$660	선교	\$0	주일학교/유스	\$0
십일조	\$3,353.22	구역선교	\$100	첫열매	\$0
감사	\$250				
건축	\$0				
				헌금총액	\$4,363.22

헌금외 수입금

				합계	\$0
				입금총액	\$4,363.22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ttp://hopestl.org/online-donation>

1.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1) '매일 큐티하는 삶': 이제 새벽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토, 6AM)

(2) '성경 읽기': 연초에 나눠드린 '성경읽기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3) '신앙서적 읽기': 안내포스터와 신간서적 책장이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 사무실(박은실권사님)에 연락주시면,
개인이 한 번에 한 권씩 2주간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4) '기독교영화 보기': 지난 목회자컬럼을 참고해 주세요.

2. Driveway 심방

코로나19의 상황에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먼저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3. 성찬식

다음 주일 (10월30일)에는 1, 2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행사

10월 30일 (주)
성찬식

11월 6일 (주)
Daylight
Saving
Time End

정기당회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구역

칠레 구역 (백형수 구역장)과
황신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김귀자 (지준현 성도)집사님
가정 위해서